

스즈짱 드롭킥! 2화 -한국어

인구가 밀집된 상점가. 도로 한복판에 세워진 사설 링에서 네로미가 한쪽 코너에서 어깨를 걸치고 이번 대전상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통행에 불편을 겪은 일부 시민의 저항이 있었지만 밖에서 대기중인 헬즈플레이어의 레슬러들에게 제압되어, 지금은 무언가 일어날 것을 직감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큰 관중을 형성하고 있었다.

“관객은 충분히 모였는데 중요한 파이터엔젤은 언제가 되야 오는걸까나? 역시 사람 하나 접어야 기어나오려는걸까?”

“이봐! 거기 커다란 여자! 네놈들 공공장소를 불법점거하고 말이야. 알고 있는거냐. 여긴 모두의 장소다!”

어떤 남자가 링으로 기어들어오면서 네로미를 향해 호통친다.

“뭐야 저거?” “좀 깬다” “공기 읽고 있어?”

관중 속에서 남자를 힐난하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남자는 개의치않고 훈계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카메라를 의식하고 있었다.

“너희들 이런 파렴치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은거냐! 그러다고 나는 개의치.. 누흠!”

남자의 말은 중간에 끊긴다. 네로미가 남자의 머리를 자신의 거유에 파묻고 팔힘으로 머리를 조여 압착한다.

“있잖아. 여긴 지금부터 처형대가 될 신성한 링이라고? 누가 훔밭로 들어오라했을까?”

피가 쏠려 금방이라도 터질 듯 빨강게 물든 남자의 얼굴. 입엔 이미 거품까지 물고있다.

누가 말려야하는거 아냐?라고 말하면서도 다들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 바쁘다.

“기다리세요!”

인파 속에서 스즈가 링에 난입한다.

“파이터엔젤!” “넷 말고 실물 보는거 처음이야.”

“왔군. 기다리다 지루해서 돌아갈까했어.”

네로미가 남자를 가볍게 링 밖으로 던져버린다.

“헬즈플레이어의 레슬러군요! 무슨 공공이입니까! 이런 사람 많은 장소에서...”

네로미의 얼굴을 확인한 스즈의 표정이 굳는다.

‘이 녀석은 분명...!’

“무슨 공공이냐고? 이 정도 사람이 모였으면 알잖아? 지금부터 널 걸레짝으로 만들어서 여기 있는 모두에게 네 꼴사나운 모습을 보여줄거야. 그래, 그 때 그 멍청한 천사처럼.”

“시, 시끄러워! 그런 비겁한 수만 없었으면 선배는 절대 당신 같은 녀석에게 당하지 않았을거야!”

‘응..?’

잠시동안 스즈를 유심히 살펴보던 네로미가 무언가 알아차리고 만면에 비열한 미소를 띄운다.

“후후후, 이제 알았어. 너 그 장소에 있었던 새끼강아지지?”

“...!”

순식간에 정체를 간파당한 스즈의 안색이 당황함에 물든다. 이렇게 쉽게 정체가 노출될 줄은... 불찰이었다.

“설마 새로운 파이터엔젤이란게 그 애송이였을줄은. 변신으로 정체를 숨기고 있어도 표정에서 다 드러난단말야. 비 맞은 강아지마냥 겁에 질려 떨고 있던 그 멍청한 얼굴이.”

깡-!

시합 개시를 알리는 공이 울린 그 순간, 갑작스럽게 네로미의 신체가 튀어오른다.

퍼억!

경계는 하고 있었지만 충분한 거리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해 아직 파이팅포즈도 취하지 않고 있던 스즈에게 닥친 불의의 일격. 문득 아래를 내려다보면 자신의 배 깊숙히 박힌 비대한 무릎의 존재를 깨닫는다.

“우..윽!”

무슨일이 벌어진 것인지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무너진다. 타들어가는 격통에 스즈가 배를 움켜쥐고 매트 위에 무릎을 꿇는다.

“커허억..! 으에억..!”

스즈의 열린 입으로부터 역류한 위액이 흘러넘쳐 매트에 쏟아진다.

“후후, 오랜만의 재회에 조금 인사해 준건데 이 꼴이야? 한심하긴.”

“크..! 당신만큼은..”

아직 회복하지 못한 스즈가 배의 격통을 참으며 주춤주춤 일으선다.

“당신만큼은 반드시 쓰러트리겠어!”

“후후, 뭐 좋아. 간부의 힘이 어떤건지 몸으로 깨닫게해주지.”

시합 개시 후 수분, 네로미라는 강적을 만나 이제껏 없던 치열한 공방이 오간다. 슬라임족인 네로미의 도약력과 거기서 오는 파괴력은 압도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테크닉 없이 힘과 스피드에만 의존한 기술의 궤도는 지극히 단순. 의식만 하고 있으면 충분히 회피가능한 공격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네로미의 기술이 스즈에게 파훼되기 시작했고 상황은 역전되어 어느샌가 스즈쪽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야앗!”

퍼억!

“오부욱..! 오웁!”

스즈의 롤링소베트에 배를 맞은 네로미가 체액을 토해낸다.

“이걸로 아가의 빛은 갓았습니다!”

“크윽..! 이 년이!”

열세에 몰린 네로미가 표정을 일그러뜨린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비열한 미소를 스즈는 눈치채지 못했다. 스즈의 드롭킥! 하지만 가드되어 충분한 데미지를 주진 못한다. 드롭킥에 밀려난 네로미가 로프 반동을 이용해 스즈에게 돌진해온다. 반격해오는 네로미의 공격을 회피하려는 그 순간, 발 밑의 무언가가 스즈의 움직임을 봉쇄한다.

“아차..!”

링부츠에 들러붙은 끈적거리는 핑크색의 이물질의 존재를 눈치챈을땐 이미 늦었다. 거대한 방망이가 스즈의 몸통에 충돌한다.



퍼어억!

“오웬!”

엄청난 충격에 로프로 날아가 튕겨돌아온 스즈를 네로미가 붙잡는다.

“후훗, 잡았다☆”

스즈의 작은 몸이 공중으로 솟구치더니 비명을 지를 새도없이 매트에 매다꽂힌다.

“컹!”

강력한 보디슬램에 스즈가 몸을 추스를 틈도없이 다시 스즈를 들어올린 네로미가 슬라임족 특유의 도약력으로 5m는 되어보이는 높이로 도약한다.

“아아아아아악-!”

공포에 질린 스즈의 비명소리가 머리부터 매트에 내려꽂히며 강제로 차단된다.



과양!

“카-학!”

“아직 움직일 수 있잖아? 호랏!”

네로미가 쓰러진 스즈의 배를 강하게 걷어찬다.

“윽! 커...윽!”

한움큼 타액을 토해낸 스즈가 네로미를 피해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하지만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양다리는 더 이상 시합을 속행할 힘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겨우 버티고 일어난 스즈를 비웃듯 기다렸다는 듯이 안면에 비대한 팔꿈치 날아와 스즈를 다시 매트에 매다꽂는다.

퍼억!

“부웃!”

스즈의 비틀린 입에서 대량의 타액이 분수처럼 뿜어져나온다. 네로미가 불쌍사납게 널부러진 스즈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일으킨다.

“누가 내 허락도 없이 일어서라했어?”

일으켜세운 스즈의 낯짝을 들여다보면 엘보에 직격당한 왼쪽 볼이 크게 부풀어 입술에서 피가 새어나온다. 반분 찌그러진 그 얼굴에 만족스러운듯 네로미가 비릿한 미소를 흘린다.

“후후, 새끼강아지한테 어울리는 귀여운 얼굴이 됐잖아? 졸속으로 만든 천사따위 이 정도지. 누구의 사주로 우리들의 방해할 하는걸까? 솔직히 말하면 이쯤에서 언니가 용서해줄 수 없는것도 아닌데.”

“돼...지...”

“하아? 지금 뭐라고했어?”

“당신 얼굴.. 돼지라고 말하고 있는거야.”

욕설에 익숙치 않은 스즈였기에 남들 듣기에 어설픈 도발이었지만 그녀가 선택한 단어는 네로미의 성질을 건드리기 충분했다. 이후 들려오는 네로미의 목소리에는 살의가 깊게 베어있었다.

“후후, 우리 새끼강아지짱이 이승 하직하고 싶은가본데 소원이라면 그렇게 해주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네로미가 스즈를 발로 차 링 포스트까지 날려보낸다.

링 포스트에 갇힌 스즈에게 쏟아지는 무자비한 발길질. 네로미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링이 지진이 난듯 굉음을 내며 진동한다.

퍽! 피억! 퍽! 빠각!

“붓!..부윳!누윳!브윳!”

“누가..! 누가 돼지라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폭력에 사람의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비명소리가 스즈의 입으로부터 울려 퍼진다.

‘이젠..안돼..!’

의식이 날아가려는 그 순간, 네로미가 네로미가 한손으로 스즈의 머리를 들어올려 슬리퍼홀드를 건다.



“커억..!윽..!첵..!”

“한번 더 말해볼래? 누구 얼굴이 돼지라고?”

점점 조여드는 네로미의 팔뚝에 목이 조여져 전신의 힘이 빠져나간다. 힘이 풀린 가랑이 사이에서 허벅지를 타고 한줄기의 투명한 액체가 흐른다.

“입버릇이 나쁜 아이에겐 벌을 줘야겠지? 먼.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서 오줌 지리게해줄게!”

네로미의 말을 의식해 허벅지를 타고 흐르는 액체에 감각을 집중하면 순간 의식이 뚜렷해지는 것을 느낀다.

“후훗, 너가 정의의 히로인이라고? 넌 정의의 히로인 같은게 아니야. 그렇잖아? 개변태씨. 지금 네 본성을 사람들 앞에서 전부 까발려주지!”

약간의 의식을 되찾은 스즈는 이 슬리퍼홀드가 관중들에게 자신의 실금쇼를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라는 것을 깨닫는다. 즉, 기술로써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 상대는 승리를 확신해 방심하고 있는 상황, 어쩌면 이것이 상황을 뒤집을 마지막 찬스일지도 모른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필사적으로 상황을 타개할 유효한 수를 생각해낸다.

메치기인가?

신장차를 생각한다면 도박수지만 상대가 방심한 지금이라면?

관절기인가?

스즈의 기술이라면 이 태세에서도 관절 굳히기 따위 간단한 일이다.

하지만 네로미라는 간부, 어떤 생물이었던가?

스즈의 선택은...